아멘 없는 교회의 토할 역겨움

(계3:14~22)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멘 없는 교회의 토할 역겨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아멘 없는 교회의 토할 역겨움'
교회에 아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께서 도저히 입에 담으실 수 없어서 역겨워 토해내신다는 이런 이야기죠.
오늘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5-16절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 이렇게 계속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

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심을 낼 것을 권고할 때에 이 말씀을 많이 씁니다.
본문 19절에서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만, 회개의 내용을 알고 열심을 내야지, 회개 할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을 내면, 점점 더 엉뚱한 방향으로 멀리 멀리 더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회개해야 하느냐? 우리가 뭘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하느냐?
그 미지근한 상태를 어떻게 벗어남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느냐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봅니다.

오늘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아멘이시요”라고 하십니다.
‘나는 아멘이다. 나는 아멘인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면,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잡아내야 해요.
그런데 참 드문 표현 아닙니까?
당신 자신을 아멘인 자, 나는 아멘인 자다, 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제가 영락 교회의 부목사로 있을 때에 별명이 아멘 권사님인 분이 계셨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주일 대예배라든지, 수요일 저녁예배 때에는 설교를 못하고, 주일 저녁때에 설교를 할 기회가 돌아오는데, 그것도 2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며 하시니까, 오랜만에 하는 대예배실에서의 설교에서 긴장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이 아멘 권사님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뭐라고 응원하시겠어요? VICTORY! VICTORY! 그러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할 때에 힘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적응이 안돼서 제가 아찔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제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맞지 않는 부분에서 그 권사님이 아멘을 해버리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면 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혼자서 아멘! 해버리는 거예

요, 그 조용하고 큰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그 아멘 소리 때문에 이어가야 될 다음 이야기와 맥이 끊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아찔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아멘이 뭡니까? 이북식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접수 합니다'라는 게 아멘이에요.
추호도, 머리털 끝만큼도 이의가 없습니다.
원래 아멘이라는 말 자체는 '진실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실하다, 확실하다는 뜻의 아멘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가운데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내가 좁쌀알만큼도 의심하거나 이의를 달지 않고 온전히 접수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이야기와 내용이 축복에 관한 내용이든 저주에 관한 내용이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100% 접수 한다는 뜻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주님을 아멘인 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아버지와 하늘에 함께 계실 때부터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머리털만큼의 이의가 없으시고 온전히 수용하시고 접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늘과 땅이라는 다른 차원의, 차원과 차원간의 갭이 생겼습니다. 이 거리를 사이에 두고서 주님께서는 이 아멘이신 당신의 속성을 유지해 나가십니다.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늘에 거하신 아버지와 땅과 하늘이라는 차원의 갭이 생겼는데, 차원과 차원 간의 거리가 생겼는데, 이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땅에서도 여전히 아멘이셨다는 것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과 생각과 의도,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머리카락 끝만큼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접수하셔서, 이 땅에서 그것을 따라 행동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성 되다'라는 것이 뭡니까? 조금도 당신의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아버지의 생각만을 받아서 그대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장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용하신 것을 장갑으로 표현을 하는데,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장갑이라는 비유를 사용하는데, 장갑도 가죽 장갑, 털장갑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수술하실 때 끼는 투명한 고무장갑 있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런 장갑이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늘나라에 계신 그 아버지의 존재, 그 아버지의 생각, 그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이 투명한 고무장갑을 끼시고 이 땅에서 사시는 바람에 다 드러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100%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 아버지의 의도를 다 접수하셔서 안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행동과 삶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세상을 창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에서 영원 전에 계시던 주님께서 그대로 다 접수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아버지의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도 변형 없이 그대로 다 접수하시니까.
그래서 아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충성 되고 참된 증인이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라는 말씀은 아멘을 반복한 겁니다. 주님은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속성이 아멘이신 분입니다.
땅에서 아멘이신 분으로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하늘에서 아멘이신 분으로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셨다. 세 번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속성이 아멘이신 분이 땅에서도 아멘이셨고 하늘에서도 아멘이셨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아멘이신 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이해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5-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는 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아버지에 대해서 아멘이신 분이잖아요. 100% 접수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교인은 누굽니까? 아멘이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아멘이신 자인 예수님을 아멘 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하다고 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모든 라오디게아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시에서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 증권회사 이런 식으로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금과 은이 많고, 양모로 맹위를 떨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양모가 최고였어요. 더군다나 검은 양모는 라오디게아 산이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의학교가 있었고, 이 의학교에서 만들어내는 눈을 고치는 안약이 맹위를 떨치던 곳이라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물 사정이 안 좋아요. 물 사정이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 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나는 온천의 도시입니다. 펄펄 끓는 물이 나오는데 11km 길이로 수로를 만들어서 온천물을 끌어들이고, 또 동쪽으로 15~16km 떨어진 곳에는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2-13절에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가 같이 언급이 됩니다. 에바브로가 세웠다고 여겨지는 이 두 교회가 같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동쪽으로 15km 쯤에 있던 이 골로새에서 땅 위에서 솟아나던 시원한 냉수를 15km의 수로를 통해서 도시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히에라볼리에서 발원해서 11km를 오는 동안에 뜨거웠던 온천수가 미지근해집니다. 15km의 수로를 따라 골로새에서 발원해 흐르기 시작했던 시원한 냉수가 라오디게아 도시로 도착할 때쯤이면 이것도 미지근해집니다.
뜨겁던 온천물도 미지근해지고, 차갑던 냉수도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아멘이 무슨 상관일까요?
지금 히에라볼리에서 발원하게 된 뜨거운 온천물이 왜 식는 겁니까? 그 뜨거운 온천물 속으로 공기 중의 차가운 기운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기가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럼 골로새에서 발원한 찬물은 왜 미지근해지는 겁니까? 공기 중에 더운 기운이 그 차가운 물속으로 유입돼서 그런 겁니다.
뜨거운 물속에 차가운 기운이 유입됐고, 차가운 물속에 더운 기운이 유입돼서 미지근해진 거예요.
이것과 아멘이 무슨 상관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온전한 충실한 증인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차원이 다른 곳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발원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살고 계시는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100% 접수하시면서, 하늘에서부터 흘러 들어와서 주님께로 도달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에 다른 기운이 끼어들지를 못한 겁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출발한 그 온천의 온도가 그대로 유지돼서 라오디게아까지 전달되었어야 하는 것처럼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충성 되고 참 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다른 기운이 섞이지 않은 겁니다. 아멘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 뜻하느냐?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신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이기면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누리시는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께서 땅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도 아멘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발원하여 너희를 통하여 행위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도 다른 기운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히에라볼리에서 출발한 온천수라면 뜨거움이 그대로, 골로새에서 출발한 냉수라면 그 시원함과 차가움이 그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다른 기운이 차단되는 단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열재가 없음으로서 다른 기운이 섞여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하늘에서 출발해서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기운이 섞이는 바람에 아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멘 시어머니.
며느리가 임신이 되질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성심으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실눈을 뜨고 목사님과 시어머

니를 번갈아보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아멘! 아멘! 하시는 자기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속으로 '이런 다고 애기가 생기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기도가 하도 절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농담이에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애기가 내려오다가 어디로 가야되나 보니까 여자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아멘! 아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쑥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한테 잉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뜻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애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행위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뭐예요? 예배시간에 아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운을 막아내야 아멘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100% 접수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단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 들어오는 수로가 되는 것인데, 내 마음의 단열재가 없으면 이 수로에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뜻에 다른 뜻이 섞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일어난 다른 기운은 뭡니까?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 기운이에요. 이 도시가 부자였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돈 맛을 아는 거예요.
돈 맛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돈을 쓰는 기쁨을 아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자동차를 한 대 사면 어떤 기쁨이 온다. 좋은 집을 사면 어떤 기쁨이 온다. 명품 백을 들고 다닐 때에 어떤 쾌감이 느껴진다.' 이 맛을 마음이 알아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골로새에서 출발한 냉수가 라오디게아로 그대로 신선하게 전달되려면, 내 마음에 다른 기운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른 기운이 없기 위한 단열재가 뭡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에, 하늘의 뜻이 손상됨이 없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내가 돈 좀 벌면 기뻐지잖아요. 교인들이 갑자기 30명이 몰려와서 내가 기뻐지잖아요. 내가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뻐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멘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본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이 세상 기운이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버려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기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하늘로 기뻐할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알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손상 없이 내 손끝과 발끝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멘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사건을 열심을 내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세상에서 돈이 좀 더 있으면 기쁘겠는데, 내가 저 아파트를 사면 기쁘겠는데, 내가 승진하면 기쁘겠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 때문에 기쁠 것이라고 느껴질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아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가 있을 때에, 목사님께서 그 기쁨거리를 바라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 기쁨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할 때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은 라오디게아 교회식의 아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아멘을 합니까? 돈에 대해서 아멘을 한 거예요. 돈의 힘과 돈의 능력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봐야 다 미지근하게 되어버리고 다른 기운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이야기는, 주님과 딱 붙어서 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딱 붙어서 지내지 않으면 단열재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서 지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을 여러분이 어떻게 감지하시는가 하면, 매일 아침마다 제로원 복음방송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자 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자고 하는 거냐? 난 알지도 못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은 이유가 없이 마음이 이렇게 떠요.
마음이 뜬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이 가라앉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우울하다는 거예요. 뭔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우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유 없이 자꾸 마음속에서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에 이렇게 되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에게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죽는 기도를 계속 하고, '주님!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서 제 마음도 데려가 주세요. 주님이 보좌에 계신 것처럼 제 마음도 하나님 보좌에 묶어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하다보면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 가벼워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주님이 아버지를 느끼시는 그 느낌을 그대로 나에게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많은 이 고해의 바다로부터 마음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고해의 바다에 가라앉아 있을 때에는 우울하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유지되는 순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그 뜻대로 움직이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온갖 시련을 거치면서 이루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이고, 승천 아닙니까? 거기에는 다른 불순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증인, 하나님에 대한 아멘 되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아멘 되심의 사건인 십자가 사건을 나도 받아들여서 날마다 그것을 먹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은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고, 부부 관계가 된다는 것이고, 부부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면서, 나의 삶이 완전한 단열재가 생겨서 수로가 됩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수로와 달리 단열재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수로가 되어서, 하늘에서 발원된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다른 기운이 영입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운이 뭐라고요? 사람들은 돈으로 기뻐하고, 승진으로 기뻐하고, 건강으로 기뻐하고, 형통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기운들이 차단되어서, 하늘의 기쁨만을 누리고 있는 내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100% 들어와서 그대로 실현 된다는 겁니다.

일곱 교회 전체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고, 길을 갈 때고, 뭐할 때든지 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일곱 방면으로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너희가 그 하늘나라를 하도 궁금해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내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나타난 것이 다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가 막히는 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하늘나라의 모습이 다음 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만으로 기뻐지는 일이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 세상에서 무슨 상황이 되어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100% 나타나는 아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멘이 없거나 막히거나 다른 기운에 의해서 먹혀버리면 토해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멘이 참되다는 뜻인데, 그 참되다는 뜻의 아멘을 참되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교인,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